

지역 전문가들과 수질 개선 성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



상주농어촌공사 전경. 사진=데일리한국DB

[상주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상주시사가 하반기 수질환경 보전회를 개최해 지역 내 수질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.

이날 회의에는 농어촌공사 직원과 경북대 교수, 하수도 사업소 관계자, 언론인 등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해 농업용수 수질 개선과 저수지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.

참석자들은 현장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며 환경지킴이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을 제안했다.